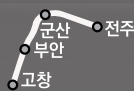


시간이 만든 기억과 여운 그리고 사람들

시간여행10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전주·군산·부안·고창

시간여행 101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
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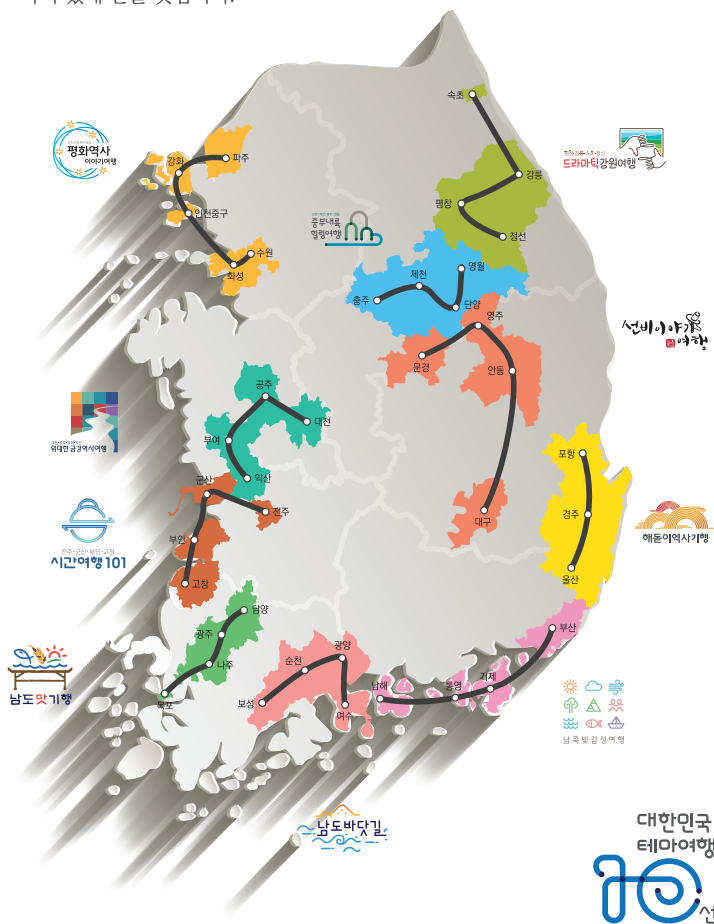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전주

18. 군산

24. 부안

32. 고창

그곳의 기억

14-17. 전주

20-23. 군산

26-29. 부안

34-37. 고창

39.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40. 축제

44.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46. 숙박

48. 교통

여행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드는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



시간여행101은 시간이 쌓아 올린 우리의 문화를 만나는 시간여행지로 과거의 나로 걸어 들어가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여행이다.

고인돌 시대부터 근대화 시대까지 문화의 변화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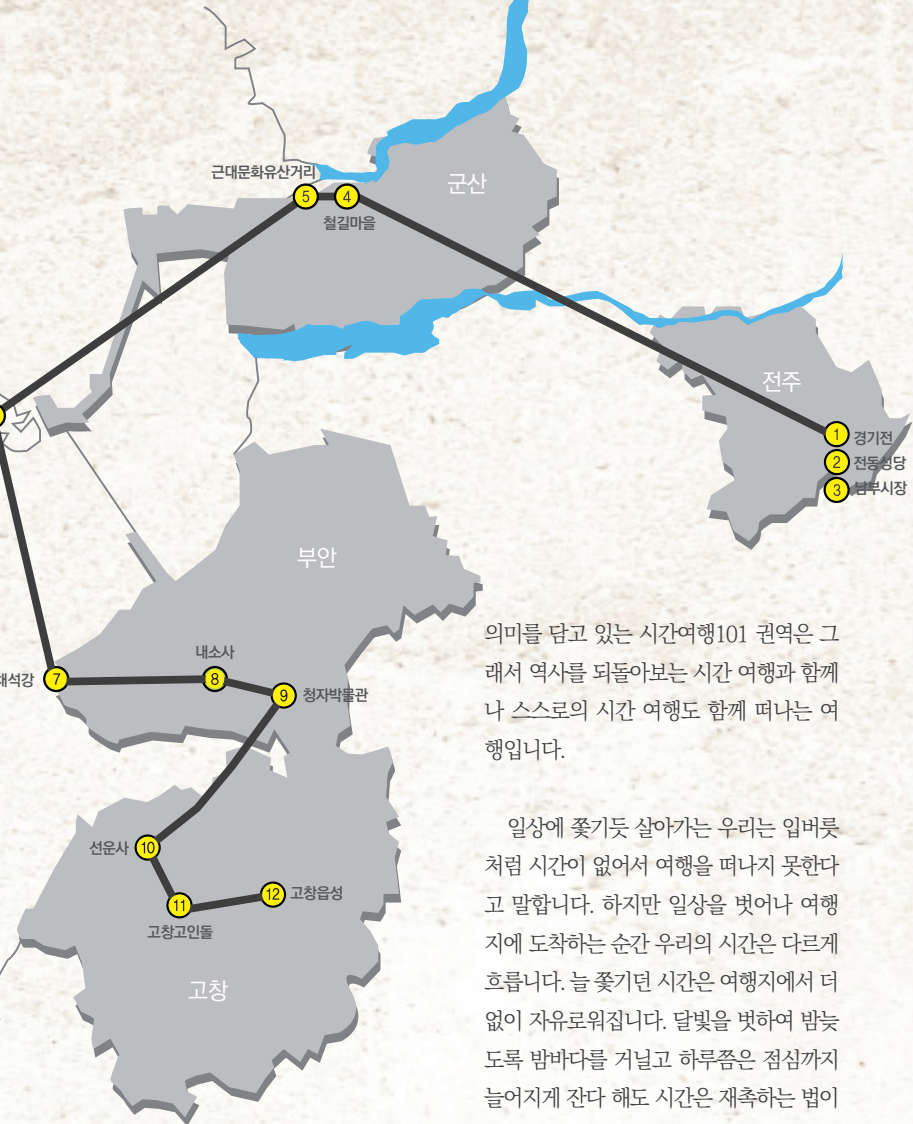


시간여행101 권역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따져 보면

하루쯤 늘어지게
점심까지
잔다고 해도
시간은
날 재촉하지 않는다.

여행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벌여오는 것은 아닐까요? 낯선 곳에 툭 떨어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유적과 역사의 흔적들을 만나는 일은 우리를 현재의 위치로 새롭게 돌려놓고 관성에 젖어 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짧게는 며칠 혹은 일주일 남짓한 여행에서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축적된 시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로 비교해 보아도 분명 남는 장사임에 틀림 없어 보입니다.

시간여행101의 101이라는 숫자는 전라북도의 100가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여행자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0가지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속에서 이 여행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여행자 자신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단지 현재로 옮겨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여행101 권역은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 여행과 함께 나 스스로의 시간 여행도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는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벗어나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늘 쫓기던 시간은 여행지에서 더없이 자유로워집니다. 달빛을 벗어나 밤늦도록 밤바다를 거닐고 하루쯤은 점심까지 늦어지게 잔다 해도 시간은 재촉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여행을 떠날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 그 시간을 즐기다

전주를 더욱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800여 채나 밀집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옛 전통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으로 사적 제339호로 지정되었으며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전동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 성지로 사적 제28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천주교 압박의 근대사를 찬찬히 되새겨 보고 순교의 참 의미를 떠올려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맛의 성지라는 것입니다. SNS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주의 맛은 미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식도락 여행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중기부터 전주성 남문 바깥에 섰던 남문장의 역사를 잇고 있는 남부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활기 가득한 야시장으로 여행객들을 색다르고 푸짐한 미식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전주는 전통과 문화예술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인 동시에 지금도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내는 곳입니다. 한옥이 들어선 골목들 사이에서 흥겨운 우리 가락이 흘러나오고, 구수한 막걸리 향기는 길손의 마음속 허기까지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멋도 있고 맛도 있는 시간 여행, 전주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경기전

태종 10년(1410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다. 전주 이씨의 시조이자 태조의 고조부인 이안사(李安社)가 살았던 전주를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여겨 이곳에 모셨다. 세종 24년(1442년)에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뜻의 경기전이라 부른다. 경기전은 왕궁은 아니지만 본전에 내삼문과 외삼문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영혼이 된 태조가 걸어올 수 있도록 왕의 길(신도神道)을 만들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 063-281-2790





전동성당

최초의 순교자들의 처형터에 세운 한국 천주교회로 호남의 모태 본당이 된 전교의 발상지이자 대표 순례지다. 1907년 초대 주임 신부인 프랑스인 보두네운(Baudounet)이 순교자들이 처형된 풍납문 성곽 돌을 빼와 주춧돌을 놓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지었다.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의 탄생이다. 흔히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두고 동양의 유교와 서양의 종교가 어우러진 장소라 부르기도 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 063-284-3222

미래는 백지다

멋진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_ 영화 <백투더퓨처> 대사 중에서





남부시장

70년대까지 전국의 쌀 시세를 쥐락펴락하던 호남 제일의 시장이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성 있는 청년몰이 들어서며 일러스트 기념품, 수제품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남부시장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하게 하는 여행지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 ☎ 063-284-1344



과거의 시간이
한 컷 한 컷
소중하게 담겨 있다



군산은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기에 감당해야만 했던 불행했던 시절의 아픔도, 일본 양식의 건축물이 보여주는 슬픈 역사도 지금은 시간이 축적되어 만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기억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군산은 지난 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군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철길마을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철길과 침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철길의 양쪽으로 한쪽에는 70년대식 건축물이 다닥다닥 모여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작은 창고들이 연결되어 친근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집과 집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길이 향수를 자극하고 추억을 파는 가게, 벽화, 철길 위의 소소한 낙서 등이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루 2회 운행되던 기차는 2008년 이후 운행이 중단되어 아름다운 철길은 탐방로가 되었습니다. 군산의 근대 역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 거리는 박물관, 예술관, 문화재 등 다양한 테마로 근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인 지주의 생활상과 그들의 수탈 역사가 묻어 있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영화 <타짜>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 군도에 자리 잡은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가 연결되어 있어 도보는 물론 자전거로 돌아보기도 좋은 곳입니다. 빵 굽는 내음으로 아침을 깨우는 유명한 빵집과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짬뽕으로 유명한 중국 집들이 들어서 있어 최근에 군산은 맛집으로도 전국에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군산은 빠르게 지나치기보다 천천히 음미하면 더 좋은 곳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여유를 품고 싶다면 군산은 당신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철길마을

문을 열면 바로 철길이 나오고, 빨래는 기차가 물고 온 바람에 말린다. 2008년까지 경암동 철길마을의 풍경이다. 철로에서 1m도 넘지 않는 거리에 오래된 건물이 서있는 풍경이 이색적이다. 2008년 7월, 철도 운행이 중단된 이후 철도마을의 일부 구간이 추억의 거리로 개발되어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4길 14

☎ 063-450-6598



근대문화유산거리

재개발이 되지 않아 옛 건물이 고스란히 남은 근대 역사 도시의 흔적이다. 군산의 수탈 역사와 근대 생활상, 해양 문화를 기록한 근대역사박물관에 둘러보자. 가장 인기 있는 3층의 근대생활관에는 인력거 조합, 일본인들이 만든 소주도매상점, 중국인이 운영하던 포목상점 등 군산 최고의 변화가였던 영동상가를 재현해 놓았다.

+ 근대문화유산 탐방코스

근대역사박물관 > 옛 군산세관 > 근대미술관 > 근대건축관 > 군산내항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일대 ☎ 063-454-7870

선유도

군산 앞바다에는 16개의 사람 사는 섬과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가 있다. 신선 선(仙), 놀 유(遊), 신선이 노닌다는 섬인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유인도 중 하나다. 선유도는 앞뒤가 바다로 이어져 있고 허리 깊이 정도의 수심이라 여름이면 해수욕을 즐기는 여행객으로 붐빈다. 자전거로 이런 절경을 감상하려는 사람도 많아 1년에 약 30만 명이 라이딩을 즐기러 온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길 34-22 ☎ 063-454-3337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을 것이다

_ 체 게바라



백제 무왕이 창건한 절에서 고려 상감청자와 함께 하는 시간

부안은 예로부터 부족한 것이 없는 고장이었습니다. 변산반도가 품은 바다와 산이 주는 풍족함, 거기에 넉넉한 곡식을 내어주는 넓은 평야를 두루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안을 지나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물고기, 소금, 땔나무가 많아 부모 봉양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했으며 어릴 적 누구나 책으로 읽었던 홍길동이 이상향으로 꿈꿨던 섬 '율도국'이 이곳 부안의 위도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안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고장이 주는 넉넉함과 따뜻한 인심, 황홀한 자연에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부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필두로 다양한 볼거리와 풍부한 먹거리, 산과 들, 바다가 주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채석강은 중국의 시성인 이태백이 뱃놀이를 하던 중에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고 전해지는 중국의 채석강과 풍광이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답이봉 일대의 층암절벽과 바다를 총칭해서 부르는 곳입니다. 층암절벽과 바다가 주는 절경에 저절로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는 곳입니다. 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는 그 역사만큼이나 깊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600미터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을 걸어 일주문을 지나면 보물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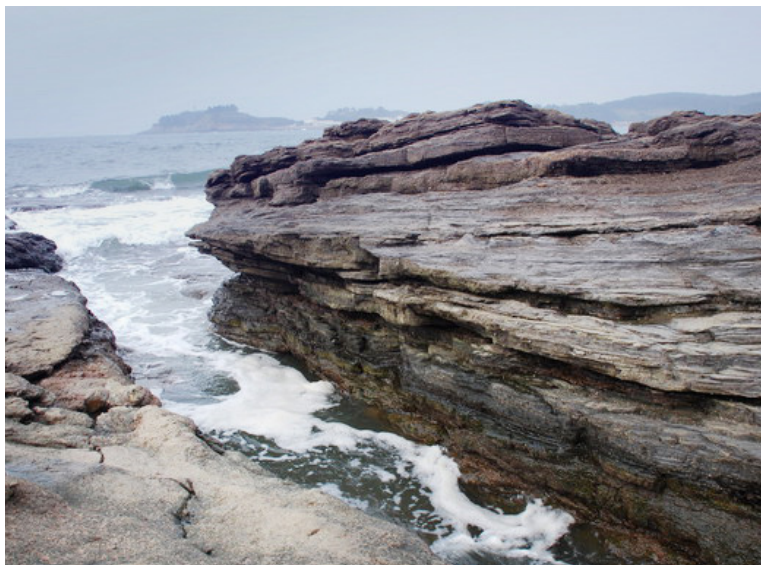
호의 대웅보전을 비롯해 3점의 국보급 보물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부안은 최상품의 상감청자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청자박물관에는 청자로 만든 손잡이, 전면 유리창, 청자의 비색을 연출한 벽면까지 볼수록 신비로운 청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소사 봉래전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오래된 사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순간, 손에 쥐고 있는 찻잔이 상감청자라면 이보다 더한 호사가 또 있을까요?



미당 시 문학관





채석강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뱃놀이를 하던 채석강과 넓아 풍광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약 20분 정도 떨어진 닭이봉에 오르면 채석강과 적벽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채석강은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대표주자로 지질학 습이나 탐사여행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하루 두 번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khoa.go.kr)에서 확인하고 가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 063-583-2064





내소사

백제 무왕 때 세워진 천년고찰 내소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능가산에 자리하고 있다. 능가산은 ‘그곳에 이르기 어렵다’는 뜻이지만 일주문부터 이어진 600m의 전나무 숲길을 걷노라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른다. 오랜 세월에 단청은 사라졌지만, 문양이 정갈하게 남아 사찰의 무엇보다 유명하다. 석가모니불 뒤 후불벽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백의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보살상의 눈을 보고 걸으면 시선이 따라오는데 그 눈을 마주치면 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063-583-7281

청자박물관

해양강국이자 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의 대표 수출품은 청자였다. 중국에서 시작된 청자와 달리 고려청자는 물총새의 깃털을 닮은 비색청자로 사랑을 받았다. 강진과 함께 대표적인 생산지인 부안은 2011년 청자박물관을 개관하고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부안청자를 선보이고 있다. 박물관의 외관은 청자완을 본떠 지었다. 2층 건물로 전시장과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사적공원이 있다.

부안청자의 특징

부안청자는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부안청자의 상감기법은 점점 얇고 투명한 유약을 만들어 상감색이 뚜렷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특히 패턴보다 서정적인 그림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방식이다. 상감기법 외에 산화구리를 붉은색 안료로 도입한 동화기법이나 하안색과 붉은색 안료를 붓에 찍어 떨어뜨리는 철백화 기법도 부안청자의 특징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 063-580-3964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열 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_ 간디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산다

_ J. 하비스

고창 고인돌



조선의 읍성을 지나 선사의 시간을 찾아가다



선운사

고창의 이야기는 삼국시대 이전인 태고부터 시작됩니다.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는 전남 화순, 인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4~5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447기의 고인돌 유적이 밀집해 있어 그 시대의 생활상과 고인들의 제작 방식 등을 알아보기에 최적지입니다.

박물관과 유적 사이를 오가는 열차에 탑승하면 기사님의 친절한 선사시대 설명까지 덤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창 읍성은 조선시대, 적의 침입을 대비해 돌로 쌓은 성곽입니다. 돌을 인공으로 재단하지 않고 거칠게 다듬어 쌓은 자연석 성곽으로 유명합니다. 성곽 둘레는 총 1,684미터로 성곽에 올라 산세를 돌아보며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서문 안에는 맹종죽림이, 동문 쪽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 산책길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답성 놀이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세 번 돌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선운산은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는 명승지로 곳곳에 기암괴석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으며 선운사, 생태숲, 야영장, 공원 등 다양한 시설 및 자연자원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영화 <서편제>의 배경이 남도였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고창에는 판소리박물관이 있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을 잇기 위해 평생을 바친 신재효 선생은 전국에 구전하는 판소리 사설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그가 후학을 양성하던 집터에 들어선 판소리박물관에는 선생이 펴낸 여섯 마당의 판소리 사설집과 판소리 관련 자료 1,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가 볼 만한 곳입니다. 고창의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원기회복과 자양강장에 좋다는 풍천장어와 복분자술이 있습니다. 농치지 말고 꼭 맛봐야 할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고창은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고창으로 가는 길은 시간 여행의 여정 중 가장 먼 과거로의 여행길이며 그곳에 가는 도중 조선시대의 읍성까지 돌아볼 수 있는 행운도 덤으로 얻어 주는 곳입니다.

선운사

봄심으로 선운사를 오는 사람도 많지만 여행자가 찾는 이유는 따로 있다. 봄이면 사찰을 둘러싼 500년 수령의 동백숲이 붉게 물든다. 동백나무의 최북단에 위치해 봄꽃의 전성기가 지나도 만개한 자태를 뽐낸다.

여름이면 진분홍의 배롱나무꽃이 피어난다. 바통을 이어받는 꽃은 꽃무릇이다. 선운사 스님을 짝사랑하던 여인이 상사병에 걸려 꽃이 되었다 하여 상사화라고도 불린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고인돌

고인돌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6~7만기 정도 있는데 한반도에 3~4만기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어서 고인돌의 나라로 불린다. 그 중 고창은 죽림리와 상갑리, 도산리 일대에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다. 탁자식과 변형 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관리 받고 있다. 고창천을 중심으로 총 6개의 코스로 나누어 고인돌을 둘러볼 수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 063-560-8660

고창읍성

궁궐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성과 달리 지방 읍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곽이 읍성이 다.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인지 일제강점기가 되자 대부분의 읍성이 파괴되어 해미읍성, 낙안읍성과 함께 3대 읍성으로 남아있다. 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북문 공북루와 서문 진서루, 동문 등양루 세 개의 문을 두고 있다. 등양루는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촬영되어 많은 여행자가 찾고 있다. 언뜻 보이는 문의 특징은 웅성이다. 성문 앞에 한쪽 구석만 뚫린 항아리처럼 성벽을 쌓아 적이 성문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극락에 가고 싶으면 고창읍성을 밟아요

1678년부터 여인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읍성을 도는 답성놀이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바퀴를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왕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인들이 걸으며 밟아 다져지니 성벽이 튼튼해졌다. 머리에 얹은 돌은 다시 가져오지 않고 성안에 쌓아두어 유사시 투석전에 대비했던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 ☎ 063-560-8067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라
헬렌 켈러, 파스퇴르,
미켈란젤로, 마더 테레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아인슈타인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었다

— 잭슨 브라운 주니어

결국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그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_ 영화 <여바웃타임>대사 중에서



시간여행 탐방

전주 경기전 전주 향교 전주부성 전주 오목대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 고창고인돌 부안 청자박물관 부안 내소사 부안 개암사



이공삼공 트렌드

전주 자만벽화마을 전주 경기전 전주 전동성당 전주 남부시장 전주 객리단길 전주 덕진공원

← 군산 은파호수공원 군산 야구의거리 군산 테디베어 박물관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전주동물원



먹거리 탐방

전주 경기전 전주 전동성당 전주부성 전주 남부시장 전주 객리단길 전주 아중호수

부안 격포항 부안 채석강 부안 새만금 홍보관 군산 비응항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부안 내소사 부안 곰소항 고창 선운산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서해안 바닷길

군산 비응도 군산 선유도 군산 새만금 부안 변산해수욕장 부안 적벽강/수성당 부안 내소사

← 고창 상하농원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고창 미당시문학관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부안 청자박물관

시간이 빚어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는 축제



전주 문화재야행

선조들은 오랜 역사의 시간을 거쳐 오며 후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을까? 오랜 기억의 역사가 그들의 손끝과 정신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빼어난 문화, 정신의 뿌리가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이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다. 빼어난 문화재,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민족의 뿌리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의 대상이다.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 일대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재 야행! 8가지 술사들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시기. 5월 T. 063-232-9937



군산 풍당보리축제

군산 풍당보리축제

보리 향기를 찾아 떠나는 군산 여행! 군산 풍당보리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축제는 농촌경치와 체험을 접목한 도농상생 시민축제로서 2006년도에 시작돼 해마다 흰찰쌀보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풀뿌리 축제다. 해당 축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농업축제로 축제장 시설, 행사 진행,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역 업체와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기: 5월 T.063-454-5233



전주 문화제



군산 풍당보리축제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간이 빚어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는 축제

부안 오복마실축제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풍부한 역사자원과 관광자원을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마을로 마실 온 듯 부안의 정과 인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부안을 방문하여 휴식과 희망을

찾고 행복을 얻어가는 축제로 부안의 역사와 자원을 읊.면 별로 소개하는 생생부안마실, 체험마을 일부를 축제장으로 축소하여 농촌.어촌체험마을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부안마실, 젊은이들의 생동감 있는 춤 퍼레이드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시기. 5월 T. 063-580-3932





고창 모양성제



부안 오복마실축제



고창 모양성제

고창 모양성제

고창모양성제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축성한 뜻깊은 조상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고창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1973년부터 열리고 있다. 주요행사로 축제 행사와 기념식이 열리고, 문예행사로는 판소리공연, 농악놀이 등이, 민속놀이로는 답성놀이, 활쏘기 등이 열리며 다채로운 체육대회도 열리고 있다. 성을 밟으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한다는 전설 때문에 매년 답성놀이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 밟기는 저승문이 열리는 윤달에 밟아야 효험이 있다고 하며 같은 윤달이라도 3월 윤달이 제일 좋다고 한다. 성을 한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바

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고 한다. 성을 돌 때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세 번 돌아야 하며 성입구에 그 돌을 쌓아 두도록 하였다. 이는 돌을 머리에 임으로써 체중을 가중시켜 성을 더욱 다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양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왜침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식 성곽으로 고창읍성이라 불리는데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창군민의 날 행사를 '모양성제'라 부른다.

시기. 10월 T. 063-562-2999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간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들



전주-한지

전주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외교문서 및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한지의 최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조달이 용이하고 종이의 질을 좌우하는 용수의 질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군산-꽃새우

군산 지역에서 잡히는 꽃새우는 단백질과 키토산, 칼슘, 칼륨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부안-고려청자

부안은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도자기 중 하나인 고려청자의 주 생산지였다. 그 맥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분청사기를 생산했으며 현재도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고창-장어

강물과 바닷물이 모이는 곳에서 잡히며 다른 곳 장어와 달리 맛이 담백하고 구수하다. 고창 지역의 또 다른 명물인 복분자와 잘 어울린다.



숙박 안내

전주

좋은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37-7	010-2607-3326	www.finehome.co.kr/ index.htm	
풍남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5	010-2757-7673	http://poongnam.com/	
덕인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28-3	063-282-6336	www.ducknsoo.kr/	
베니키아 전주한성 호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43-3	063-288-0014	www.benikea.com/	

군산

히노키잡 (2호점)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 5길 49	063-445-7585	cafe.daum.net/Hinokijam	
파라다이스 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1길 21	063-452-3388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안1길 45	1588-0292	www.benikea.com/	

부안

샤니모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충3길 18

063-584-9936



고창

고창읍성한옥
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28

063-563-9977

고창읍성한옥마을.kr/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숙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니키아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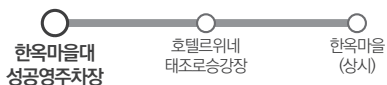
*상기 숙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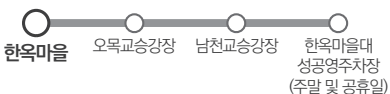
전주 시티투어버스

전주 한옥마을 셔틀버스

A코스



B코스



명품 1000번 버스노선(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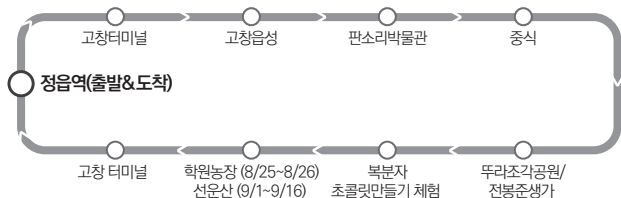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티투어버스 매주 토, 일요일 운행



고창 시티투어버스 고창팜팜시골버스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우리는 습관처럼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그럴 땐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잠깐의 시간으로 수백년의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말이다.